

“희망의 씨앗 열매 맺도록”

이항로 진안군수 신년 기자회견담화... “예산 4000억 돌파로 전략사업 탄력”

“군민과 함께 뿌린 변화·희망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건강하게 자라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항로 진안군수

이항로 진안군수는 2일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고 군 예산 사상 첫 4000억원 돌파로 무술년 새해 주요 전략사업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의 올해 예산 규모는 민선6기 원년인 2015년에 비해 1,000억원 이상 늘어난 4,018억 6,000만원에 달한다. 군은 주민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184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677억원, 사회복지 분야에 566억원, 문화관광 분야에 252억원 등을 투입한다.

2018년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지만 사업비 축소와 운영비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려 하며 영호남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국립 지역권 산림치유원은 올해 첫 삽을 뜬다. 산림치유, 산림휴양·숙박, 연구개발, 핵심시설 등 4개 지구로 꾸며지는 국립 산림치유원은 총사업비 827억원 규모로 사업 완료 후 운영비도 국가가 100% 지원한다.

이 군수는 “치유원이 조성되면 지역 총생산과 고용증가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군수는 또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진안-전주 소태정 고갯길의 가파른 경사와 급커브를 바로잡기 위한 500억원 규모의 국도개량사업도 이르면 3월 시작한다”며 “운전자와 생명 보호는 물론 관광객의 발길이 늘어나고 귀농귀촌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써나간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도시가스를 10월 이전에 공급하고 1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진안읍) 건립, 용

담·안천·진안읍·주천면·마령면·정천면·성수면에서 추진되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확언하며 말했다.

또한 그는 “취임 초 시작한 주민주도의 쓰레기 3N 운동을 정착시키고 마을회수도 설치 확대, 용담호 상류 인공습지 조성, 우렁이농법 확대 등을 통해 청정 환경과 용담호 맑은 물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취임 초 시작한 주민주도의 쓰레기 3N 운동을 정착시키고 마을회수도 설치 확대, 용담호 상류 인공습지 조성, 우렁이농법 확대 등을 통해 청정 환경과 용담호 맑은 물을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군수는 “진안시장의 고품질 마니정터와 주말시장을 활성화하고, 대규모 농가의 공선출하 유도, 출하품목 규모화를 통해 시장 경쟁력을 키우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6차 산업 활성화, 대도시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등에도 힘써 부자농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무주반딧불축제로”

황정수 무주군수, 기자 간담회... 축제발전을 위한 계획 밝혀

황정수 무주군수는 2일 무주군 주재기자들을 만나 문화관광 대표축제로 선정된 무주반딧불축제의 향후 발전계획에 대해 밝혔다.



황정수 무주군수

“20여 년 간 개최됐던 지난 축제들과 그 경험을 되짚어 무주반딧불축제가 대표축제에 걸맞는 위상과 내실을 갖추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대표축제가 됐다는 것은 차별화된 가치와 발전가능성, 그리고 공공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인정받은 것인 만큼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과감히 정리하는 노력

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환경지표곤충 반딧불이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한편, 주제관과 체험관 자료관 연구소 등 반딧불이와 관련된 콘텐츠를 모두 아우르는 복합테마관 건립도 서두를 계획임을 시사했다.

황 군수는 이어 반딧불축제의 핵심이자 인기 프로그램인 신비탐사 여건을 개선하고 기회를 확대하는 등 반딧불축제 개최 취지와 목적 효과에 부합하는 생태자연환경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운영에 집중 하겠다”고 덧붙였다.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확대와 환경개선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황정수 군수는 “반딧불축제가 지닌

본연의 매력과 우리 군민들의 의지, 그리고 태권도와의 연계 노력을 통해 대표축제를 넘어 앞으로 글로벌 축제, 엑스포 개최까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며 “문화관광 대표축제라는金字탑이 우리 군민들의 자긍심을 키우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자양분이자 깨끗한 무주 부자 되는 군민 실현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의 기쁨을 나누고 세계인들이 함께 즐기는 무주반딧불축제를 위해 군민 모두가 함께 하자는 뜻을 담아 진행된 것으로 무주군 주재기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작은 노력 계속해 큰일 이루자”

무주군 시무식... 새해 화두로 마부위침(磨斧爲針) 공요

무주군은 2일 무주읍 예주문화관 대강당에서 2018년도 시무식을 가졌다.

이날 시무식에는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간부 공무원들의 현충탑 참배와 현화에 이어 기념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황 군수는 “6차 산업화와 7차 산업화를 통해 이룬 경제공동체가 무주의 희망”이라며 “고령화 등으로 약화되고 있는 공동체를 더욱 공고히 해 부자군민을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마부위침

(磨斧爲針 :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의 가르침을 되새기자고 강조한 황 군수는 “2018년 한 해 성취의 기쁨을 누리보자”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날것고 어렵다고 외면하기 보다 작은 힘이라도 모아 뜻을 이루려는 열정을 키워야 한다”라며 “사람도 자연도 깨끗한 무주를 만들고 부자되는 군민의 삶을 실현시켜 보자면 우리의 목표와 노력이 앞장 결실로 맺힐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강조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민 중심 행복 장수’ 건설 총력”

장수군 시무식... 6차 산업 중심 농업 육성 등 추진

최용득 장수군수는 2일 군민회관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2018년에는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 장수’를 만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신년포부를 밝혔다.

장수군은 올 한 해, 6차 산업의 부자농촌, 군민과 소통을 통한 열 행정, 군민이 행복한 문화·관광·체육, 꿈과 행복이 있는 교

육·복지, 자연과 함께하는 녹색환경, 안전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개발을 국정방침으로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최용득 군수는 “새해에도 전 직원이 군민이 중심되는 행복장수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희망찬 미래 향해 힘차게 출발”

진안군 시무식... “대표관광지 조성 등에 힘 합치자”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아 2일 군청 강당에서 이항로 군수를 비롯해 200여 명의 공직자가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시무식을 갖고 새해 첫 업무를 시작했다.

합찬 출발을 알리는 전라북도중평국보존회의 풍물놀이로 시작한 이날 시무식에서 이항로 군수는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희망

진안 실현을 위해 도전과 열정을 다한 공직자의 노고를 격려하며 새해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출발하자”고 밝혔다.

이어 “금년에도 청정환경 보전 사람과 돈이 모이는 대표관광지 조성, 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공직자 모두가 힘을 합쳐줄 것”을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매아리

장수꿈의학당 · 장수학당 개강

장수군예향교육진흥재단은 겨울방학을 맞아 지난 2일부터 중학생 대상 '장수꿈의학당'과 고등학생 대상 '장수학당'을 개강하고 맞춤형 집중교육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장수학당은 오는 31일까지 22일간 장수고에서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한곡마고 등 관내 4개 고교생 100명을 대상으로 지속형 맞춤형 심화학습으로 운영되며, 관내 우수 교사진과 수도권 학원 유명 강사진으로부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탐 과목 등을 교육받는다.

이와 함께 장수꿈의학당은 오는 19일까지 14일 동안 장수중(교장 박항)에서 장수중, 번암중, 장계중, 계남중, 천천중 등 관내 5개 중학교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수준별 맞춤형 집중교육이 실시된다.

김왕섭 재단사무국장은 “본 프로그램은 관내 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최상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0년 장수군예향교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지원해왔으며, 현재까지 73억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태권도진흥재단, 무술년 시무식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성태, 이하 재단)은 2018년 무술년(戊戌年)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무식을 가졌다.

2일 태권도원 운영센터 대강당에서는 김중현 사무총장을 비롯한 재단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징지구 조성을 통한 태권도원 성지화와 태권도원 활성화 등 산적한 과제들을 원활히 해결해 나가는 결의를 다졌다.

특히, 올해 태권도원에서는 '태권도원 경연대회'와 '세계청소년태권도캠프', '제99회 전국체전 및 제38회 장애인 체전 중 태권도 종목'이 열리는 등 지난해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이어 수준 높은 대회와 행사 등이 열릴 예정이다.

재단 김중현 사무총장은 “올 한해도 재단과 태권도원의 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특히, 상징지구 조성/태권도원 방문객 증대 등 태권도원 성지화와 활성화를 위한 의미있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http://www.kimsleports.com CEO 김 테 홍

서바이벌

레프팅 / 카약 ATV / 버기카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용포리 485-2)

대표 약력

일편인 스키 및 점프선수활동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인베르티 지역 휘트
전국 신인 선수권 대회(금메달)	응급처치 요원 자격증 취득
국제대회 디스 잡기 및 우승	레프팅 가이드 자격 취득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출전	수상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취득
국가대표 코치 역임	연/김테홍 스포츠 이카데미 대표
일본 신타쿠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키학교 (NSL/NSL2) 휘트	